

대규모 투자 ‘제2의 도약’ 나선 여수산단

몸집 불러 국제경쟁력 키운다

설비 고도화 원가 절감 이윤 극대화

해외공장 건설·사업 다각화도 활발

요즘 여수국가산업단지에는 불야성을 이루고 있다. 석유화학 집적화단지인 여수산단 내 기업들이 몸집 불리기와 고도화 시설 증설로 밤낮이 없다. 왜 이들은 ‘사양산업’의 대명사로 여겨졌던 석유화학산업에 또 다시 대규모 투자를 하는 걸까.

업체들은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말한다. 석유화학산업은 GDP 성장률 대비 두배 가까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미래성장산업이자 첨단산업을 잇는 브릿지산업이다. 따라서 구조 고도화를 통해 생산 능력을 키우고, 해외 진출과 설비 증설 등 몸집을 불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국제경쟁력을 갖추겠다는 전략이다.

◇왜 몸집 불리나=석유화학업계의 최근 키워드는 ‘신·증설’이다. 국내는 물론 해외 공장에서의 신·증설이 어느 때보다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LG화학·호남석유화학 등 초호황을 누리고 있는 석유화학업체들은 탄탄한 실적을 토대로 ‘규모의 경제’를 키우고 있다. 석유화학제품부터 정제전소자재, 무기화학 등 신증설 분야도 다양하다. 해외 현지 공장 건설도 활발하다.

최근 말레이시아를 대표하는 화학기업인 타이탄을 인수한 정방식 호남석유화학 사장이 ‘규모의 경제 실현’

을 화두로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여수에 보유한 NCC(남사분해) 공장 및 PE·PP 생산설비 확대로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해 중동과 중국의 석유화학기업들과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것”이라며 “단지 규모의 경제뿐만 아니라 설비확장을 통한 생산 원가 절감도 중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관계자는 “고도화 설비를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고 규모를 늘려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시설투자 확대는 물론 2차전지와 태양광 등 사업다각화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기반시설 확충도 활발=대규모 석유 비축기지과 관련 부두 건설 등 기반시설 확충도 추진된다. 오일탱크 KNOC여수(주)는 여수시 신덕동 한국석유공사 유류부지 41만9312㎡에 4억 달러를 투자해 890만 배럴 규모의 유류저장시설을 조성한다. 원유와 석유제품 저장시설인 육상저장탱크 31기와 입·출하 시설 부두 4선화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관

련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되면 오는 9월께 착공할 예정이다.

여수시는 이 사업이 완공되면 11조 7575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109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대에너지의 열병합발전소 공사도 한창이다. 열병합발전소는 3만 3000㎡에 5400억원을 들여 2012년 완공된다. 하루 700t의 스팀과 전기·온수 등을 생산해 입주업체들에게 공급하게 된다.

◇지표로 본 여수산단=1967년 2월 첫 삽을 뜬 여수산단은 1969년 하루 6만 배럴 생산규모의 호남정유(GS칼텍스) 여수공장 준공으로 가동을 시작했다. 이후 40여년간 놀라운 양적·질적 성장을 거듭해왔다.

여수산단은 여수시 중흥동·삼일동 일원 3171만㎡(약 1000만평) 부지에 GS칼텍스·LG화학·한화석유화학 등 268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1만5850명의 근로자들이 지난 5월 한달간 5조5797억원의 생산실적을 냈다. 물들어 누적 생산실적은 27조3185억원이며, 수출은 21억9500만달러 규모다. 지난해 1년간 52조8945억원의 생산과 183억1000만달러의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여수산단에 입주한 업체수는 267개사로 지난 2000년 12월 말 86개사에 비해 210%(181개사) 증가했다. 생산실적도 2000년 1조8359억원에서 지난해 말 5조2058억원으로 183%(3조3699억원) 신장했다.

/여수=박정욱기자 jwpark@



최근 완공돼 시운전에 들어간 GS칼텍스 여수공장의 ‘검압잔사유 수첨탈황보해시설(VHCR·일명 넘버 3)’. 국내 최대 규모의 정유 고도화 설비인 이 시설은 오는 9월부터 본격적인 상업생산에 들어가 연간 6000억 원 이상의 추가 수익이 기대된다.

대체 카드 없어…鄭총리 유임?

재보선 결과 거취 영향 미칠 듯

개각 시기가 7·28 재보선 이후로 늦춰지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정운찬 국무총리의 거취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일단 여권에서는 이번 개각이 집권 하반기 큰 틀의 체제 구축이란 의미가 있는 만큼 총리 교체는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유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지난주 취임하자마자 정 총리 교체론을 들고 나왔으며 여권 내부에서는 여전히 총리 교체 상황에 대비해 후임자를 물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 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이후 진행된 여권의 사전 검증 과정에서 그를 대신할 만한 카드를 찾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유임 가능성도 부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당초 7·28 재보선 이전으로 관측됐던 개각이 그 이후로 미뤄진 것도 정 총리의 유임 가능성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 총리가 최근 재래시장과 중소기업에 잇달아 방문하고

소상공인과의 간담회를 갖는 등 민생행보를 강화하고 있는 것도 ‘유임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아울러 7·28 재보선에서 여당이 선전할 경우엔 정 총리가 유임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정 총리 교체론이 기정사실화됐지만 최근 기류는 유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며 “교체할 경우 누가 새로워졌다는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 카드를 찾기 어려운 상황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이번 7·28 재보궐선거 결과가 정 총리의 거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6·2 지방선거에 이어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도 여당이 참패한다면 정 총리의 교체는 불가피하다. 반면, 이번 재보궐 선거가 여당의 승리로 귀결될 경우, 정 총리의 유임 가능성은 높아진다는 것이다.

오히려 중폭 이상의 개각 등으로 정 총리에 힘이 더 실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

지방세 年 300억…1000억 들여 문화시설 건립도

■ 여수산단 지역 기여도는

여수국가산업단지에는 268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이중 GS칼텍스·LG화학 등 34개 사가 여수산단 전체 생산 비중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공장장협의회를 구성해 환경 개선과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며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여수시에 내는 지방세만 연간 300억원 정도. 고용에 따른 지방교부세·주민세 등을 포함하면 여수시 살림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또 문화시설 확충과 장학사업, 사회봉사활동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GS칼텍스는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문화공연시설인 ‘예술마루(조감도)’를 건립할 계획이다. 여수시 망파산 및 강도 일원 70만1740㎡(약 21만평) 부지에 1000억원을 들여 1000석 규모의 대공연장과 기획전시장·에너지 홍보관·전망시설 등을 갖춘 예정이다. 시민 휴식공간인 바람의 언덕·노을의 언덕·잔디마당·고인돌정원·해안산책로 등 생태·조경시설도 조성한다. 지난해 11월 착공해 2012년 세계박람회 개최 이전 완공될 예정이다.

GS칼텍스는 또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다음달 15일까지



한 달 동안 여수시 남면 연도와 안도리 백금포해수욕장, 금오도 직포해수욕장, 거문도 이금포해수욕장 등 4곳에서 하계 캠프를 운영한다. 올해로 6년째인 여수 섬마을 해수욕장 하계 캠프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LG화학·남해화학·여천NCC 등 주요 기업들은 사회공헌활동을 운영하며, 회사 차원에서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장학금 지급, 섬지역 학생들을 위한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 등을 통해 지역인재육성에 앞장서고 있다. 또 독거노인 사랑의 집 고쳐주기를 통해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가 하면, 지역 농수산물 사주기운동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여수=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시-시의회 갈등 봉합이나 확산이나

의원들 “27일까지 사과 등 없을땐 강력대응”

광주시 간부들이 윤봉근 광주시의회 의장의 ‘집행부 견제발언’에 대해 반박 보도자료를 내면서 촉발된 광주시와 시의회 간의 갈등이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시의원들이 요구한 강운태 시장의 공식 사과 등 이렇다할 움직임이 없는데다 당사자인 윤봉근 의장과 일부 초선의원들이 쉽게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어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광주시의원들은 지난 21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윤 의장의 발언에 대해 간부공무원들이 집단 대응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강 시장의 공식 사과 등을 요구했지만, 22일 현재까지 강 시장을 비롯한 광주시 간부들의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다.

전날 강 시장은 간부들이 모인 자리에서 “(집행부와 시의원들 간에) 서로 일부 오해가 있었으면 오해를 풀자” “앞으로 시의회와 긴밀한 협조 관계를 형성하겠다”고 말했지만, 시의회가 요구한 공식사과 등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시의원들은 자신들이 제시한 기간인 27~28일까지 일단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 는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시의회 이준호 운영위원장은 22일 “의원총회를 통해 집행부 측에 공식 사과와 해명, 책임자 조치, 재발방지 대책 등을 요구해 놓은 만큼 일단 기다려볼 작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 소속인 광주시장과 시

의원들 사이의 갈등이 자칫 7·28 광주 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윤봉근 의장은 “강 시장이 전날 간부들에게 ‘일부 오해’ 운운한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면서 “시장과 간부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진지하게 다가와와지, 정치적인 제스처에 그친다면 의회를 더 모독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따라서 다음주 초까지 광주시의 구체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을 경우 집행부와 시의회 간의 갈등은 점점 충돌양상으로 치달을 우려가 높다. 반면 강 시장이 정치력 등을 발휘해 충분히 ‘봉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아빠의 손발톱 무좀은 아이에게 옮길 수 있습니다

소리 없이 퍼지는 손발톱 무좀엔 바로바로 로푸록스

- 발톱하기 쉬운 손발톱 무좀 옮기기 전에 치료하세요
손발톱 무좀은 단순한 미용상의 문제가 아니라 진행 시 손발톱의 기능적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질환이며 가족에게 전염될 수 있습니다.
- 손발톱에 직접 작용하는 손발톱 무좀 전용 치료제인 선택치세오
하나마아 투입제 로푸록스는 4급트레텐올 선텔이 손발톱 밑까지 침투 집중하여 무좀균에 직접 작용하는 손발톱 전용 치료제입니다.
- 있는 것과 함께 사용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진균을 제거한 피부 시판 시약인 로푸록스와 함께 사용하시면 치료기간의 단축과 보다 높은 치료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손발톱 무좀에 바로바로 선택치세오 로푸록스



제약의힘 약국으로 가져오세요
한도를 위해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도 1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한도 1000원 할인 혜택은 3월 31일까지 한도 1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본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2 11층 1101호 (우편번호 06149) 02-552-5500 FAX 02-552-5501 www.hanmed.co.kr
*당사사의 모든 제품과 서비스는 대한민국에서 제조된 제품입니다. *로푸록스는 100% 국내에서 제조된 제품입니다. *로푸록스는 100% 국내에서 제조된 제품입니다.
[대외협력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2 11층 1101호 (우편번호 06149) 02-552-5500 FAX 02-552-5501 www.hanmed.co.kr *로푸록스는 100% 국내에서 제조된 제품입니다. *로푸록스는 100% 국내에서 제조된 제품입니다. *로푸록스는 100% 국내에서 제조된 제품입니다.